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정미라

한영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Nursing Students

Mi-Ra Jung

Depart. of Nursing, Hanyeong College

(Received March 30, 2022; Revised April 18, 2022; Accepted May 2, 2022)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84 nursing students in the five colleges located Y and S city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Oct. 25 2020 to Nov. 5 2020.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resul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found to be in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ed with academic self-efficacy. the multiple regression indicates the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22.1%($F=11.4$ $P<.001$)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nclu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cademic self-efficacy increase education program for strateg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Stress, Nursing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rresponding author : kcc4977@hanmail.net

I. 서론

1.1. 연구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¹⁾. 특히 타 학과에 비해 전공 관련 학업 외에도 간호사의 기본 역할과 기술 등의 임상수행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임상실습 교육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겪는 학업 및 실습의 부담감으로 인해 대학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²⁾. 따라서 의료 전문직업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간호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변인이 제시되고 있다³⁾. 긍정심리란 개인이 경험하는 위해요소나 부정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기능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인간의 심리 속성을 말한다⁴⁾.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성취와 발전을 향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 네 가지 긍정심리의 통합된 개념이다⁴⁾. 긍정심리자본을 간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속성은 개발이 가능한 잠재력과 긍정적 인지를 통해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복합적인 심리 역량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 확인되었다⁵⁾.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긍정심리자본이 잘 형성됨이 학습몰입과 자기주도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⁶⁾, 또한 간호사가 간호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창의성을 바탕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임하며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긍정심리자본은 임상실무에서 미래의 간호조직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간호 인력을 보유할 수 있는 핵심전략으로 보고 있다⁵⁾. 또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학업 중 긍정적 성과와 관련한 역경의 상황에서도 학업 성취를 높이며, 학교생활에 대해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는 학업탄력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다⁷⁾.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의 예비간

호사로서 긍정적인 자원의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해 나가며 강화함이 필요하다. 반면, 간호대학생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이론 및 실습교과목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²⁾.

학업스트레스란 학교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뜻한다⁸⁾.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지율은 57.7%로 높게 나타났다⁹⁾. 특히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중등도 이상이며,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학업스트레스로 보고되고 있다²⁾. 또한 학업과 임상실습 및 국가시험 외에도 이를 성취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다¹⁰⁾.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자신감, 대학생의 삶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¹²⁾.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장기적 목표달성의 그릿과 학업스트레스, 전공만족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²⁾,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문제해결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간호대학은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업수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학습동기의 원천인 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촉진의 주요변인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¹⁴⁾. 이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수행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호대학생에게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함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 간호사로서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와 그릿²⁾, 자기주도학습, 학습 몰입⁶⁾ 임파워먼트와 학업탄력성⁷⁾등의 다양한 변인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 대학생들의 학업에 긍정적인 심리상태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심리자본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자 선정

Y시와 S시에 소재한 5개의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f^2) .15, 검정력(1- β) .95, 예측요인 8개로 필요한 표본수를 구하였을 때, 총 160명이 필요하였다.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미회수 및 응답에 불성실한 설문지 제외한 184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심리자본의 정도 및 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등¹⁵⁾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MBI-SS)척도를 Bae와 Shin¹⁶⁾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소진 5문항, 냉소주의 4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의 3개 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부터 ‘항상 그렇다’ 4점이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Bae & Shin¹⁶⁾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¹⁷⁾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과제난이도 10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의 3개 영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과 Park¹⁷⁾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4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9이었다.

2.3.3. 긍정심리자본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과 Youssef-Morgan¹⁸⁾이 개발한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PCQ)를 Jeong¹⁹⁾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효능감 6문항, 복원력 6문항, 희망 6문항, 낙관성 6문항의 4개 하위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음을 의미한다. Luthans과 Youssef-Morgan¹⁸⁾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0$ 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5개의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기간은 2020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가 작성 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는 t- 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167명(90.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전체 대상자의 79명(42.9%)이 ‘21~2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71명(38.6%)이 ‘4학년’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학교만족은 ‘보통’이 111명(60.3%)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공만족은 ‘보통’ 77명(41.8%), ‘만족’ 77명(41.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학 동기는 ‘취업률이 높기 때문이다’ 79명(4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7(9.2)	
	Female	167(90.7)	
Age	≤20	77(41.8)	
	21~23	79(42.9)	
	≥24	28(15.2)	
Academic year	1rd year	39(21.2)	
	2rd year	37(20.1)	
	3rd year	37(20.1)	
	4rd year	71(38.6)	
School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7(3.8)	
	Satisfied	50(27.2)	
	Moderate	111(60.3)	
	Dissatisfied	14(7.6)	
	Very dissatisfied	2(1.1)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7(9.2)	
	Satisfied	77(41.8)	
	Moderate	77(41.8)	
	Dissatisfied	13(7.1)	
Reason of application according to the aptitude to hold a service	Consider high school grades	3(1.6)	
	high employment rate	79(42.9)	
	Parents, permission of others	46(26.1)	
	Etc	6(3.3)	

3.2.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심리자본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2.94±0.49 점(범위 1-5),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은 3.65±0.44점(범위 1-6)이었으며, 긍정심리자본 평균 점수는 3.44±0.47점(범위 1-5) 이었다(Table 2).

<Table2> Degree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184)

Variables	Range	M±SD
academic stress	1-5	2.94±.49
academic self-efficacy	1-6	3.65±.4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5	3.44±.47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는 입학동기(F=2.93, p=.014), 학교만족(F=5.06, p=.001), 전공만족(F=13.6, p=.00)이었다(Table 3).

<Table3> Differenc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F(p)
Gender	Male	3.31±.51	-1.26 (.209)
	Female	3.45±.46	
Age(yr)	≤20	3.42±.48	0.49 (.611)
	21~23	3.48±.47	
	≥24	3.39±.44	
Academic year	1rd year	3.39±.52	1.83 (.142)
	2rd year	3.34±.43	
	3rd year	3.58±.47	
	4rd year	3.45±.45	
School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76±.45	5.06 (.001)
	Satisfied	3.64±.46	
	Moderate	3.35±.45	
	Dissatisfied	3.24±.43	
	Very dissatisfied	3.45±.00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74±.38	13.6 (.000)
	Satisfied	3.61±.46	
	Moderate	3.27±.40	
Reason of application	Dissatisfied	3.07±.37	2.93 (.014)
	according to the aptitude	3.63±.41	
	to hold a service	2.98±.35	
	Consider high school grades	3.05±.19	
	high employment rate	3.39±.44	
Parents, permission of others		3.40±.54	
	Etc	3.30±.32	

* p<.05, ** p<.01, *** p<.001

3.4.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r=-.251, p<.001)유익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262, p<.000)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낮고,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184)

Variables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r(p)	r(p)	r(p)
academic stress	1		
academic self-efficacy	-.251 (<.001)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069 (.353)	.262 (<.000)	1

3.5.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공차한계는 0.67-0.92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8-1.4의 범위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79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beta=.35, p=.000$)과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16, p=.021$)이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총 설명력은 22.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Table5> Factors influenc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184)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1.53	0.35		4.37 (.000)
Major satisfaction (dummy Satisfied)	0.21	0.04	.35	4.41 (.000)
academic self-efficacy	0.17	0.07	.16	2.33 (.021)
Adjusted R ² = .221 (F=11.4, p=.000)				

IV. 고찰 및 결론

4.1.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에 긍정적인 심리상태인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은 평균 3.44점인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동일한 도구의 선

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Jeong 연구에서³⁾ 평균 3.42점, Lee와 Lee 연구에서²⁰⁾ 평균 3.68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를 달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Jeong 연구에서²¹⁾ 평균 3.46점과 Choi와Lee 연구에서²²⁾ 평균 3.55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과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이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 및 임상실습을 이수함으로 국가고시를 거쳐 이미 직업적 장래가 준비되어 주어진 환경에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학업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 2.94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동일한 도구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의 연구에서는²³⁾ 평균 2.75점, Jeong과 Jeong의 연구에서²⁾ 평균 2.3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00와 Shin의 연구에서²⁴⁾ 평균 2.23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들의 결과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것을 보아 전공이 다른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간호대학생은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방대한 분량의 과제와 정규 학점의 수업을 이수하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65점으로 동일한 도구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Jeong 연구에서²⁾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 3.64점, Yang 연구에서²⁵⁾ 평균 3.81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를 달리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와 Lee 연구²⁶⁾에서는 평균 3.56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은 자신감부여 및 학습동기의 원

천으로 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촉진함에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은 차이분석결과 입학동기, 학교만족, 전공만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개인의 성취와 발전을 향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긍정심리자본이 간호대학생에 적성이 맞아서 입학하였거나, 학교만족이 매우 만족일 때, 전공만족이 매우만족일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Jeong의²¹⁾ 연구결과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아져 학업적 수행 및 성취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에게 학업적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핵심 간호 역량의 향상을 위해 흥미를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하위영역의 희망, 자기효능감, 복원력, 낙관성을 증대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이미 직업이 정해져 있는 학업에 대해 탄력성을 높임으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는 Jeong과 Jeong의 연구⁷⁾를 뒷받침하고 있다. Han의 연구²⁷⁾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은 간호대학생의 사례중심 교육에서 필요한 변인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¹³⁾.

따라서 이상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로

확인되었으므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시켜 간호학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예비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요즘 간호학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에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 간의 변수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2.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22.1%였다. 따라서 개개인의 심리적인 강점의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5개의 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반복적인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증재프로그램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투입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Jung HY, Lee KS. A Study on the Stress, Self-Esteem, Mental-Health and Suicidal-Ideation

-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5;3(2):328-339.
2. Jeong MR, Jeong 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6):414-423.
 3. Jeong E, Jeong MR.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9):309-317.
 4. Luthans F, Luthans KW, Luthans B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2004;47(1):45-50.
 5. Lee SN, Kim JA. Concept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7;23(2):181-190.
 6. Oh, JH, Kim JS.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Directed Learning and Social Support on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20(23):1021-1037.
 7. Jeong MR, Jeong E. Effects of Empowerment and Academic Resilience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0;18(6):345-352.
 8. Oh, MH, Cheon SM. Analysis of Academic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t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Understanding People. 1994;15. 63-95.
 9. Statistics Korea Social Survey. "Social Survey Results in 2017.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
 10. Jeong HS. Influence Factors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Focused on Dimensions of Empathy, Ego-resilience, Stress-coping Strateg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4):256-266
 11. Kum JH.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 8(10):325-338.
 12. Bandura 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13. Kim JS, Choi HJ. The Effects of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021;9(1):141-150
 14. Kim JY, Heo NR.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2):611-623.
 15. Schaufeli WB, Martinez IM, Pinto AM, Salanova M and Bakker A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02;33:464- 481.
 16. Bae BH, Shin HC. The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n Academic Stress: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9;21(3), 747-764.
 17. Kim AY, Park I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 - Efficacy Scale. 2001;39(1):95-123.
 18. Luthans F, Youssef-Morgan MC.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workplace:

- The impact of hope, optimism, and resiliency. *Journal of Management*. 2007;33(5):774-800.
19. Jeong EY.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2013.
 20. Lee SY, Lee KH. Convergence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5):269-279.
 21. Jeong MR, Jeong 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Stress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2017;17(12):399-407.
 22. Choi AR, Lee S. The Effects of Temperament, Social Support and Emotion Regulation on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6;37(2):57-77.
 23. Shin SH. Influence from the academic stress by the achievement pressure of their parents and adjustmen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11):6756-6766.
 24. Y00 GS, Shin DY.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3;14(6):3849-3869.
 25. Yang KM. The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12):445-453.
 26. Lee YW, Lee ES. The Mediated Effects of Gratitude Disposi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5): 35-47.
 27. Han SJ.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3;25(5):559-566.